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 처리,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RISP 모델의 적용

조영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주무관

김수연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How Public's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Affect COVID-19 Risk Perceptions,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nd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Young-Lee Cho**

(Assistant Officer, Seoul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Soo-Yeon Kim***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edia, Arts, and Scienc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existing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based on generational gaps in understanding the domestic spread of COVID-19. It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s of public's age, political orientation, and COVID-19 risk perceptions on their attitudes towards COVID-19 risk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s well as their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by applying the RISP model. The survey was conducted in November 2020 with 107 respondents categorized as young (in their 20s), 107 categorized as middle-aged (in their 40s), and 111 categorized as elderly (in their 60s) using panel data from a research firm in Korea. Respondents' age affected their risk perceptions negatively. It meant that respondents in their 20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OVID-19 risk perceptions than did respondents in their 60s. Nevertheles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various age group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 COVID-19 risk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or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is indicates that Korean publics seek and process COVID-19 risk communication information actively and evaluate the government's response to

* This study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in 2021(이 논문은 저자의 2021년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광고 홍보 전공)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 shy1533@seoul.go.kr

*** sooyk@sogang.ac.kr, corresponding author

COVID-19 somewhat positively regardless of age. While respondents' political orient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OVID-19 risk perceptions, it affecte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ose who were 'progressive' in political orientation we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positively. The COVID-19 risk perceptions of respondent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information seeking and systematic processing positively, while it impacted their heuristic processing negatively. Respondents' risk perception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information avoidance. It meant that high risk and unprecedented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the COVID-19 hardly made publics avoid COVID-19 information. While respondents' systematic processing significantl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eir information seeking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Respondents' risk perceptions indirectly affecte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positively through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Particula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high-risk perceptions of young publics in their 20s, and risk communication for them should be well-planned and targeted to alleviate their high-risk percep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apply RISP model to understand how public's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affect COVID-19 risk perceptions,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n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Keywords: Risk communication, COVID-19, Age, Political orientation, RISP model

1. 서론

2021년 1월 28일 기준으로 전 세계 218개 국가에서 약 1억 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중 2백만여 명이 사망하였다(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질병의 확산만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공중의 위험 인식은 정치, 경제 등 정책 결정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 쟁점화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8월 1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였지만,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광화문집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치적,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오주현, 2020. 9. 8).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진 검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하기에, 공중의 이해와 합의 등 공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위험커뮤니케이션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 과정이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이해 뿐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의 문제 공유와 연대를 이루어내는 것으로(김영욱, 2014),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박상표·조홍준, 2010).

개인의 위험 인식은 심리, 사회,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에(Slovic, 2000), 같은 위험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심리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새롭거나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의 습득은 필수적이며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는 중요하다(McComas, 2006). 위험 인식과 정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모델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모델은 위험 판단에 관여하는 감정과 정보, 행동을 예측하는 종합적인 모델로(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위험 인식에 따라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지, 회피하려고 하는지와 그 정보의 처리를 체계적으로 하는지, 주변적 처리를 하는지 위험 인식과 정보 처리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Huang & Yang, 2018). 위험 인식과 위험 정보의 추구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며 체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이경진·진범섭·최유석·한정석, 2017).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험 인식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리서치가 2020년 6월 중순 진행한 조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 20대, 30대, 40대로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 위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성현정, 2020). RISP 모델에서 과거의

위험과 관련한 경험, 정치적 성향,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위험 인식에 대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RISP 모델을 설명하는데 다른 선행 변인들에 비해 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Yang, Aloe, & Feeley, 2014a). 그러나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에 RISP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기에, 연령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상황에 대해 가장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20대와 60대(최유정·최샛별, 2013),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세대인 40대(윤호우, 2020. 10. 24)를 중심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감염병 위험 이슈에 대해, 연령과 정치 성향 같은 사회문화적, 개인적 특성이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중의 정치 성향을 RISP 모델에 적용해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기존에 RISP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최종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예를 들면, 환경 문제(Kahlor, Dunwoody, Griffin, Neuwirth, & Giese, 2003), 자연재해(Griffin, Yang, ter Huurne, Boerner, Ortiz, & Dunwoody, 2008), 불산 유출과 태풍(허서현·김영옥, 2015), 기후변화(김영옥 외, 2018), 지진(이혜규·백혜진, 2019)), 최근 들어 연구의 실무적인 함의를 더하기 위해 관련 예방 행동과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등으로 변인을 연결시켜 확장하기도 하였다(김효정, 2019).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RISP 모델에서의 정보 탐색과 체계적 처리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까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위험과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중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주로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코로나19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감염에 대한 걱정, 우려, 불안 등 두려움의 정도, 국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Dryhurst et al., 2020; Gerhold, 2020; Honarvar et al., 2020; Qiu et al., 2020; Shiina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 경로, 증상, 예방 행동에 대한 지식, 잘못된 믿음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되었다(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Shiina et al., 2020). 코로나19의 위험 인식에 대한 국외 연구는 2020년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발표되었다.

드라이허스트 등(Dryhurst et al., 2020)은 3월부터 4월까지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멕시코, 일본, 한국 10개 국가 6,99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정도, 감염 가능성, 코로나19가 본인, 가족, 친구, 나라에 미칠 영향 정도, 감염 후 건강의 심각성,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지식, 경험, 사회적 증폭, 친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많은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덜 위협하게 느꼈고, 위험 인식과 건강 예방 행동은 크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걱정은 많이 하지만 감염에 대한 우려 수준은 낮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Gerhold, 2020). 시이나 등(Shiina et al., 2020)은 2020년 3월말, 일본에서 코로나19 인식과 불안의 정도가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응답자의 13.3%는 코로나19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10.7%는 전혀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고, 11.7%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염려 수준이 낮았고, 10.8%는 감염이 되어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었다. 감염에 대한 지식수준과 불안 정도가 낮은 이들은 대략 전체 응답자의 10%정도였는데 그들은 젊었지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적절한 예방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의 교육과 정보 제공의 시급함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정보의 접근성 수준도 낮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호나바르 등(Honarvar et al., 2020)은 이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 Rosenstock, 1974)에 기초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행동, 위험 인식 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남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행동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관찰된 주요한 양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며(Dryhurst et al., 2020; Gerhold, 2020; Honarvar et al., 2020),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며(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Qiu et al., 2020; Shiina et al., 2020),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Dryhurst et al., 2020; Lee & You, 2020).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왜 여자가 남자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의 위험 인식 관련한 많은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 인식이 높다고 밝혔다(Flynn, Slovic & Metz, 1994; Steger & Whitte, 1989; Sten, Dietz & Kalof, 1993).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성역할(Steger & Whitte, 1989)과 관련하여 여성,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양육자(Sten et al., 1993)로서 위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며,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들을 시간 추이별로 살펴보면,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2020년 2월 말, 코로나19의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 등에 대해 응답자 중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낮지 않다.’ 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1.3%, 인지된 심각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48.6%, ‘매우 높다.’는 비율도 19.9%에 달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예방 행동 의도가 높아져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의 실천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ee & You, 2020).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3월 진행된 부산 시민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 조사에는 응답자의 81.1%가 코로나19 확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감염 우려(71.2%)보다 주변 사람의 감염(82.4%)을 더 우려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감(59.3%)을 느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 반응(29.4%)이 발생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황선윤, 2020. 3. 23). 다시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대로 내려온 4월 중순에 진행된 조사에는 경기도민 10명 중 1.4명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전 조사처럼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가 자신 뿐 아니라 주변으로의 전염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훈 외, 2020). 그러나 경기 연구원이 4월 말 전국 17개 광역시·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응답자의 90%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76.3%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이은환, 2020).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8월 제주도민 625명에게 코로나19의 의미를 묻은 결과, ‘위기(41.9%)’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두려움(27.8%)’, 세 번째는 ‘변화의 기회(26.1%)’, ‘일상적이라는 답변도 3.8%로 확인되었다(위영석, 2020. 9. 21). 이처럼 우리나라 공중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확산 수준에 따라 위험을 느끼는 정도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유동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질병 자체에 대한 심각성은 낮으나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는 취약성은 조사 대상자의 반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독일이나 이란 등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결과로 주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이 높았다(황선윤, 2020. 3. 23). 이러한 우려는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인 예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Lee & You, 2020). 또한,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이은환, 2020).

2) 위험 정보 탐색 처리(RISP) 모델

위험 정보 탐색 처리(RISP) 모델은 개인이 위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며 처리하는지에

관한 모델로 개인적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감정, 주관적 규범, 정보 불충분성, 정보 탐색과 회피,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이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모형이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특히, 위험 정보에 대한 탐색과 처리 태도가 핵심적인 변인으로 위험 인식에 따라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지, 피하려고 하는지와 그 정보의 처리를 체계적으로 하는지 혹은 주변적 반응을 보이며 어림짐작으로 주변적 처리를 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한다(Huang & Yang, 2018). RISP 모델에 따르면, 개인들은 정보 충분성에 대한 심리적인 필요로 위험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체계적 처리를 한다(Yang et al., 2014a). 이 모델은 이글과 체이큰(Eagly & Chaiken, 1993)의 휴리스틱-시스템틱 정보처리과정 모델(The Heuristic-Systematic Model)과 슬로빅(Slovic, 1987)의 심리측정 방법, 에이젠(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등 위험 판단에 관여하는 감정과 정보, 행동을 예측하는 종합적인 모델이다(김영옥 외, 2018). RISP 모델에서 휴리스틱-시스템틱 정보처리과정 모델은 위험 정보의 처리 부분에 활용되고, TPB는 행동에 대한 태도의 형성이 행동 수행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주관적 규범 등의 변인과 관련이 있다(차유리·조재희, 2019).

RISP 모델은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 예방접종, 자연재해, 환경 등 다양한 위험 인식과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적용하여 검증되어왔으며(Yang et al., 2014a), 국내외에서 다양한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추구와 처리 태도 나아가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위험 요인들(메르스(서미혜, 2016), 원자력 발전(김효정, 2019), 미세먼지(구윤희 외, 2020; 차유리·조재희, 2019))에 RISP 모델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들은 다양하였다. 서미혜(2016)는 메르스 관련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가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특히 SNS 이용량에 따른 고(高), 저(底) 두 집단 비교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SNS 이용이 메르스에 대한 위험 지각을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동인으로 작용해 정보의 체계적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미혜(2016)는 SNS 이용 정도에 따라 나는 집단 비교를 통해 SNS 이용이 메르스에 대한 위험 인식이 부정적 감정으로 관계되어 지는 것을 완화하고, 정보의 체계적 처리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김효정(2019)은 RISP 모델의 지역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서울 지역 보다 원자력 인근 지역 주민이 위험 인식, 감정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위험 정보 탐색 처리 경향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김효정(2019)은 RISP 모델에서 '부정적 감정'을 '분노'와 '두려움'으로 세분화해 개별 감정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반면, 분노가 클 때는 오히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감소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관련 지역 주민의 관여도와 위험 인식, 감정적 반응이 서울 시민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구유희 등(2020)은 RISP 모델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위험 인식과 부정적 감정 반응이 관련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거쳐 미세먼지 예방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부정적 감정이 미세먼지 캠페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개인적 특성(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RISP 모델은 위험 인식이나 감정, 주관적 규범, 행동과 태도 등 여러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가장 선행하는 변수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위험과 관련된 경험이나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물론 인구통계학적 요소도 이에 해당된다(김영옥 외, 2018). RISP 모델에서 과거의 위험과 관련한 경험, 정치적 성향,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위험 인식에 대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Yang et al., 2014a). RISP 모델은 정보 불충분성으로 개인들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를 설명하는데, 정보 불충분성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특정 위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반응이 있다(Yang et al., 2014a). 선행 연구는 여성일수록, 소수 인종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위험과 관련한 경험이 있을수록, 정보 불충분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Griffin, Neuwirth, Dunwoody, & Giese, 2004). 연령은 위험 인식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변인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같은 연령 집단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역사 경험을 통해 동일한 태도를 갖게 되는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s)' 또는 '코호트효과(cohort effects)'를 관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Mannheim, 1970). 기존의 위험 인식과 연령에 대한 연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경험과 위험 가능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란, 2011).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RISP 모델을 설명하는데 다른 선행 변인들에 비해 그 설명력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Yang et al., 2014a),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에 RISP 모델을 적용하여 알아보는데 있어, 연령이라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020년 3월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위험 인식, 불안과 우울증을 조사한 결과, 노인 연령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 건강은 전체 연령층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Bruine, 2020).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의 위험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였지만(Gerhold, 2020), 이란에서는 나이가 사람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행동 수준이 낮았고(Honarvar et al., 2020), 중국에서는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Qiu et al., 2020). 이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위험 인식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나 위험 인식이 항상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험 인식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한국리서치가 2020년 6월 중순 진행한 조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 20대, 30대, 40대로 순으로 나타났다(성현정, 2020). 기존의 위험 인식과 연령에 대한 연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위험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영란, 2011), 60대의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보다 코로나19의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는 조사 결과(성현정, 20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1>을 설정하였다.

H1: 공중의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다.

RISP 모델에 따르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의 개인의 가치도 위험 인식과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독립 변인이 될 수 있다(김영옥 외, 2018; Yang et al., 2014b). 김영옥 등(2018)은 RISP 모델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와 처리를 알아보았는데,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문화이론의 개념 중에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한국인의 집단적 문화와 연관이 있는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을 통제 변수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평등주의와 사회적 체면, 개인적 체면은 정보의 회피, 체계적 처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은 정보의 탐색과 피상적 처리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체면은 정보 회피와 피상적 처리에 정(+)적 상관관계를, 개인적 체면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의 탐색과 처리는 사회문화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쇼버그(Sjoberg, 1998)는 위험 인식에 대한 세계관 이론(Douglas & Wildavsky, 1983)과 정치 성향, 신뢰 등의 변인을 활용해 36개의 위험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개인의 정치 성향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개인의 정치 인식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핵 발전(이영애·이나경·이현주, 2013; Slovic et al., 1991)과 지구온난화(Leiserowitz, 2006) 관련 이슈가 있다. 1989년 미국 네바다 주에 핵폐기물 폐기장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위험 인식과 의사 결정, 신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당시 핵 폐기장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였던 기관인 에너지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매우 낮았고, 이는 정치적인 걸림돌이 되어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Slovic et al., 1991). 이영애, 이나경, 이현주(2013)는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지역 이미지 손상과 주민 간 갈등,

경제적 불이익의 발생을 염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때, 보수 정치 성향의 주민은 방폐장 유치를 반대할 가능성이 진보 성향 주민보다 약 3.8배 높았는데, 이는 보수 정치 성향의 주민이 방폐장의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바, 비사로, 블룸(Inbar, Pizarro & Bloom, 2009)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진보적인 성향보다 낙태, 동성애 결혼과 같은 도덕적 순수성과 관련된 이슈에 혐오적인 감정과 더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과 정치 성향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멕시코와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ryhurst et al., 2020).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얻은 지역 별 트럼프 유권자 비율을 정보(MIT Election Data Science and Lab)를 토대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를 검토하고, 코로나19 관련 구글 건강 정보(Google Health Trends) 검색 이력을 지역 별로 분석한 결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위험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Barrios & Hochberg,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기에(유수인, 2020. 2. 21; Dryhurst et al., 2020), 아래 이에 관한 <연구가설2>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문제1>을 설정하였다.

H2: 공중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다.

RQ1: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은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4) 건강신념 모델(HBM)에서의 위험 인식

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질병과 관련된 신념이 질병 예방 행동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1950년대 미국의 공공 보건 서비스 방향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다양한 질병 예방 연구에 활용되면서 발전되어 왔다(Rosenstock, 1974). 건강신념 모델에서 건강 예방 행동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크게 지각된 위협, 행동 수행에 관련한 혜택과 장애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s),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로 구성되었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이중 지각된 취약성은 질병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건강 위협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민감성과 위험성이고, 지각된 심각성은 개인이

느끼는 질병의 심각성을 치료하기 힘든 정도, 죽음의 가능성, 고통 정도를 뜻하며,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은 지각된 위협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Janz & Becker, 1984). HBM은 위와 같은 4가지 건강 신념을 중심으로 결핵을 비롯하여 암, 고혈압, 에이즈 등 다양한 질환과 관련한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데 활용되어왔다(장해 박주식·이경식, 2020).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질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신종 감염병과 관련하여서는 신종플루(유석조·정현주·박현순, 2010), 해외 감염병(장해 외, 2020)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해, 박주식, 이경식(2020)은 HBM을 적용하여 해외 감염병 예방행동의도의 요인과 외적행위단서로서 SNS 구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취약성을 제외하고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혜택, 지각된 장애가 해외 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SNS 구전의 조절효과는 지각된 혜택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석조, 정현주, 박현순(2010)이 해외 신종 감염병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을 건강신념 모델과 백신 부작용 보도의 영향을 함께 분석했을 때는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혜택이 높을수록 건강 예방 행동인 백신 접종 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병관, 오현정, 신경아, 고재영(2008)이 인플루엔자 예방 미디어 캠페인의 효과를 건강신념 모델을 적용해 예방 행동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심각성과 개연성, 이득과 자기효능감이 예방 수칙 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 캠페인이 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신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HBM에서 활용된 지각된 위협 차원을 코로나19의 위협 인식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의 위협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Dryhurst et al., 2020; Gerhold, 2020; 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Qiu et al., 2020; Shiina et al., 2020)들도 실질적인 질병의 심각성과 감염 가능성 등을 지각된 위협의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RISP 모델은 건강 관련 위험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정보 처리를 다루지만,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위험 인식에 대한 접근 또한 일반적인 위험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그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정도나 사망률, 감염의 가능성이나 경로, 감염재생산지수, 유행 지역, 일일 확진자수와 같은 감염 상황 등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취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 부분 새로운 정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ISP 모델을 중심으로 질병에 위험 인식과 정보 처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에 대한 HBM의 일부 변수들에 집중하였다.

5)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정보 탐색과 정보 처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핀 등(Griffin et al., 1999)의 RISP 모델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

어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종속변인으로 삼으며, 개인적 특성, 위험 인식, 감정 반응, 주관적 규범, 정보 불충분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인식, 정보 수집 능력 인식 등 주요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보의 탐색은 탐색과 회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 탐색은 미디어, 사람과 사람 간 대인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정보 회피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뜻한다(구윤희 외, 2020). 사람들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더 뜨는 덜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불충분성이 탐색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에 주목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하기도 한다(Griffin et al., 1999). 불확실성 관리 이론(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UMT)에 의하면, 불확실성이 주어졌을 때, 이를 평가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불확실성의 관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그 중에 가장 널리 연구된 전략은 정보의 탐색이다(Hogan & Brashers, 2009).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진단과 치료 방법의 계획을 세우면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기도 하며, 이외는 반대로 현재의 희망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또 기존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재의 불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회피하기도 한다(Barbour et al., 2012).

위험 정보의 처리는 주어진 위험 정보를 꼼꼼하게 되새기며 체계적으로 처리하는지 혹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변적으로 하는 지로 구분할 수 있다(Huang & Yang, 2018). 체계적(systematic) 처리는 결정을 내릴 때 조심스럽게 비교하고 이미 내린 결정 정보도 자문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한다(Trumbo, 2002). 그러나, 위험 정보에 대한 주변적 처리는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주변적(heuristic) 정보 처리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Wei, Zhao, Wang, Cheng, & Zhao, 2016), 주어진 메시지나 사실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 최근의 경험에 의존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차유리·조재희, 2019).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관한 연구는 위험 인식과 부정적 감정, 정보의 불충분성 그리고 주관적 규범과의 영향 관계를 연구하는데 집중하였다(구윤희 외, 2020; 서미혜, 2016; 순치엔통·조미혜, 2018; 허서현·김영옥, 2015).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Ajzen, 1991). 허서현과 김영옥(2015)이 태풍에 대한 위험 인식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위험 인식이 부정적인 감정을 거쳐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서미혜(2016)는 메르스에 대한 위험과 정보 처리, 방지 행동의 관계에 대해 SNS 이용 고 집단과 저 집단을 나누어 연구한 결과, SNS를 적게 하는 집단은 기존의 RISP 모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메르스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이 정보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적극적인 정보 활동의 결과로 메르

스 방지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반면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없이 바로 메르스 방지 행동을 취하거나 관련 정보를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메르스 방지 행동을 하는 두 가지의 상이한 모습을 동시에 보였다. 순치엔룽과 조미혜(2018)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 처리 및 확산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 인지하는 위험이 클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커졌고, 부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도 높아졌으며, 부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사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불충분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였지만,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정보 불충분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정보가 적기 때문에 정보의 처리 활동과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세먼지의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과 처리에 대해 연구한 구윤희 외(2020)의 결과도 순치엔룽과 조미혜(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위험 인식은 부정적 감정과 정보 불충분성에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감정은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다만 정보 불충분성에 있어서 정보 처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탐색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정보 불충분성을 거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 반응만으로도 정보의 탐색과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감정의 높은 정(+)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 결과들[태풍(허서현·김영욱, 2015), 메르스(서미혜·2016), 사드 배치(순치엔룽·조미혜, 2018), 미세먼지(구윤희 외, 2020)]을 토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환경에서 정보 불충분성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정보 탐색과 처리 의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의 측정에 있어서 일부 선행 연구는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토하지 않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고 하는지와 처리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만 측정(구윤희 외, 2020; 순치엔룽·조미혜, 2018)하였거나 정보의 탐색이라는 변인에 탐색과 회피의 문항을, 정보 처리의 변인에 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를 함께 넣어 측정(허서현·김영욱, 2015)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유사한 메르스에 대해 연구한 서미혜(2016)처럼 정보의 탐색과 처리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탐색과 회피, 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에 관한 <연구가설3>과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가설4>를 설정하였다.

H3: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a)정보 탐색에 긍정적(+) 영향을, (b)정보 회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정보의 (a)체계적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b)주변적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

공중은 위기 상황에서 위험 인식에 따라 위험관리자인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주목하고 평가한다(할타르 어뜨후·김태형·문명재, 2019). 불안정성이 높은 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지만(정진성 외, 2010),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위험의 결과와 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얻어 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조광덕·김중백, 2018). 따라서 코로나19 위험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이다. 국가마다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은 국민에게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되었다.

본래 RISP 모델의 최종 변인은 정보 탐색과 처리이지만, 최근에는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태도와 함께 최종적으로 정보 공유와 확산 의도(김효정, 2019; 순치엔통·조미혜, 2018), 건강을 위한 피해 예방 행동 의도(김영옥 외, 2018; 이경진 외, 2017; 서미혜, 2016; 차유라·조재희, 2019),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Fischer & Glenk, 2011; Yang et al., 2014a)등을 연구에 접목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RISP 모델을 활용해 위험 정보의 탐색 처리와 개인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예측된 이슈의 현저성과 기후변화 정보를 탐색하려는 태도, 정보의 체계적 처리가 관련 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특히, 기후변화 관련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를 장려하는 것이 정책 지지를 이끄는 중요한 길임을 확인하였다(Yang et al., 2014a). 피셔와 글렌크(Fischer & Glenk, 2011)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선호와 신뢰 등은 위험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정보 탐색과 체계적 처리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5>를 설정하였다.

H5: 코로나19에 대한 (a)정보 탐색과 (b)체계적 처리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중의 정치 성향이 정부 정책 평가와 같이 공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에(김영태, 2012), 정치 성향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21년 2월 한국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알아보았을 때, 정

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 대응 평가가 확연히 다름이 나타났었다(김현, 2021. 1. 21).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75%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반면, 중도층은 58%, 보수층은 3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나 가능성보다 정치 성향이 가장 정보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되었다(김현, 2021. 1. 21.).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 성향에 따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연구가설6>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정치 성향 차이가 나는 현실(윤호우, 2020. 10. 24)을 반영하여,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관한 <연구문제2>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재난 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의 <연구문제3>을 설정하였다.

H6: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RQ2: 공중의 연령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RQ3: 공중의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의 가설들을 종합하여 모형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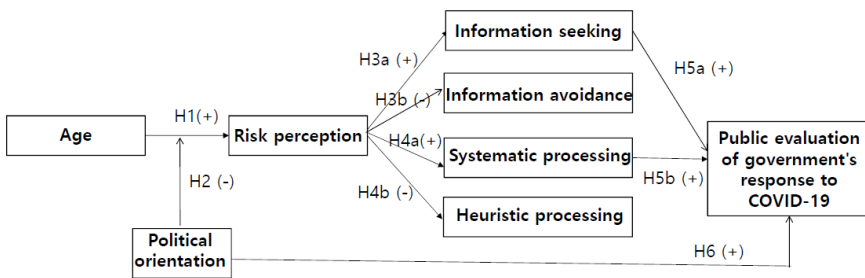


Figure 1. A proposed model with hypotheses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은 RISP 모델의 다양한 종속 변인들(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과 처리)과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를 설명하는 주요 독립 변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20대와 60대(최유정·최셋별, 2013),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40대(윤호우, 2020. 10. 24)를 현재 국내에서 연령에 따른 정치 성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2020년 11월 초⁴⁾,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각 연령대별 성비를 비슷하게 배정하는 할당표집을 적용하였고, 20대 107명, 40대 107명, 60대 111명 총 32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측정 문항

(1) 코로나19 위험 인식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신념 모델의 지각된 위험 차원을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결핵에 대한 건강신념 모델 연구에 활용(고지하나, 2011; 조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신, 2012)된 지각된 심각성에 관한 3개 문항과 지각된 취약성에 관한 6개 문항을 포함한 총 9개 문항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결핵 대신 코로나19를 넣고, “나는 ~ 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개인의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지각된 심각성은 “나는 코로나19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alpha = .81$), 지각된 취약성은 “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6개 문항(Cronbach's $\alpha = .88$)으로 구성되었다($M = 4.73$, $SD = 0.96$).

4) 2020년 11월 초 국내 코로나19 확산 현황은 10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100명 이내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11월에 접어들면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의 발생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2) 정치 성향

이 연구에서 정치 성향은 현실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 정당 선호와 지지로 정의하였으며, 유연·금희조·조재호(2020)를 따라, “귀하의 정치 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 보수적이다. ~ 4 = 중도 ~ 7 = 진보적이다.” 7점 척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하도록 하였다($M = 4.20$, $SD = 1.13$).

(3)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대한 문항은 메르스 관련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가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미혜(2016)의 연구에서 위험 정보 탐색 행동과 위험 정보 처리 행동을 측정하는 전 문항을 가져와 메르스 대신 코로나19를 넣어 수정하였고, 기존 측정 문항 앞에 “나는”을 추가해 질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코로나19 정보 탐색은 “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를 포함한 3문항(Cronbach's $\alpha = .91$)($M = 5.14$, $SD = 1.04$), 코로나19 위험 정보 회피는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alpha = .90$)($M = 2.61$, $SD = 1.25$),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면 그 내용을 꼼꼼히 읽는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alpha = .91$)($M = 4.96$, $SD = 1.08$),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면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대충 훑어본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alpha = .85$)($M = 3.09$, $SD = 1.27$)이다.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4)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 전파 체계, 비상대책기구의 실시간 운영, 초동조치 골든타임 확보 총 세 가지를 평가 지표(김향기·박길수·정중수, 2018)와 2007년 소방방재청이 발간한 ‘재난관리체계등의 평가 방법 연구’에서 부처별 재난관리 활동 평가를 위한 공통지표 중 ‘재해 대응’ 단계를 상황관리, 정보체계, 연구 및 개발 총 세 가지 항목(한국비시피협회, 2007)으로 나눈 것을 종합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맞춰 상황 전파 및 정보 체계, 비상대책기구 운영 등 상황관리, 초동조치, 연구 및 개발 총 4개 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언 도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 대응 평가 중 상황 전파 및 정보 체계에 대해서는 정보의 축적과 공유

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과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소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신뢰, 신속한 공개, 투명성, 위험 인식에 대한 경청, 계획 다섯 가지 원칙 준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총 6개 문항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에도 “나는 ~ 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를 앞뒤로 추가해 개인적인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내적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 측정 결과 믿을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alpha = .96$)($M = 4.93$, $SD = 1.23$).

3) 사전 조사

2020년 10월 연구자의 지인을 통한 편의표집으로 20대 7명, 40대 8명, 60대 14명 총 29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험을 묻기 위해 ‘경험 없음’, ‘코로나19 검사(확진자 접촉)’, ‘코로나19 확진’ 3문항에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 전화 상담’, ‘자가 격리’, 기타 주관식 문항을 추가해 답변을 다양화하였다.

4) 본 조사

(1) 조사 대상자의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먼저, 20대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5명(51.4%), 남성 52명(48.6%)이었고, 전체 평균 연령은 24.9세($SD = 2.69$)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7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37명(34.6%), 고졸 이하 13명(12.1%), 대학원 재학 5명(4.7%), 대학원 졸업 5명(4.7%) 순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41명(38.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 기술직 32명(29.9%), 무직도 13명(12.1%)으로 세 번째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35명(32.7%),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 34명(31.8%), 100-200만원 미만 25명(23.4%)으로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27명(25.2%), 경기도 22명(20.6%)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경험은 응답자 92명(86%)이 없었으며, 8명(7.5%)이 코로나19 검사 경험이 있었고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수준($M = 3.44$, $SD = 0.82$)이었으며 정치 성향은 중도($M = 4.13$, $SD = 1.08$)에 가까웠다.

40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6명(52.3%), 여성 51명(47.7%)이었고, 전체 평균 연령은 44.64세($SD = 2.95$)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7명(7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17명(15.9%), 고졸 이하 12명(12%)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 기술직이 51명

(47.7%)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 13명(12.1%), 주부가 12명(11.2%)으로 세 번째였다. 월 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4명(22.4%),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 23명(21.5%), 400-500만원 미만 22명(20.6%), 300-400만원 미만이 17명(15.9%)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30명(28%), 서울 29명(27.1%)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경험은 103명(96.3%)이 없었으며,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수준($M = 3.22$, $SD = 0.66$)이었고, 정치 성향은 중도에 가까운 수준($M = 4.34$, $SD = 1.13$)이었다.

60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6명(50.5%), 여성 55명(49.5%)이었고, 전체 평균 연령은 62.87세($SD = 2.40$)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40명(36%), 대학원 졸업 이상이 17명(15.3%) 순이었다. 직업은 주부 25명(22.5%), 사무, 기술직 23명(20.7%), 은퇴자 14명(12.6%), 무직 11명(9.9%) 순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27명(24.3%), 200-300만원 미만 24명(21.6%), 300-4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이 각각 17명(15.3%), 400-500만원 미만 15명(13.5%), 100만원 미만 11명(9.9%)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41명(36.9%), 경기도 21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경험은 110명(99.1%)이 없었으며,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수준($M = 3.28$, $SD = 0.72$)이었고 정치 성향은 중도에 가까운 수준($M = 4.14$, $SD = 1.16$)이었다.

마지막으로, 20대, 40대, 60대 응답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정치 성향에 대해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현재 건강 상태($F(2, 322) = 2.43$, $p > .05$)와 정치 성향($F(2, 322) = 1.12$, $p > .05$)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분석 방법

연구 문제와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22의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 간의 계수들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동일성 검정을 위한 비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 간의 χ^2 검정치를 확인하였으나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사이의 χ^2 값 차이가 유의미하여 형태 동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집단분석을 행하기에는 연령별 집단의 표본수(20대 107명, 40대 107명, 60대 111명)가 총 관측변수의 수에 비해 부족했기에, 관측변수당 10배에서 20배 정도가 적정한 표본의 수라는 기준(Mitchell, 1993)에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

다. 이에 총 325명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을 이용한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를 포함한 조절인자모델을 활용하였다.

5.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기초분석

연령대별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세대별로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322) = 3.85, p < .05$). Scheffe's test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M = 4.87, SD = 0.88$)와 60대($M = 4.53, SD = 0.97$)의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p < .05$)가 확인되었지만 40대($M = 4.78, SD = 1.00$)는 다른 연령대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태도에서는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위험 정보의 탐색은 20대($M = 5.08, SD = 1.09$), 40대($M = 5.05, SD = 1.02$), 60대($M = 5.26, SD = 0.98$) 모두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2, 322) = 1.28, p > .05$). 위험 정보의 회피 수준은 20대($M = 2.66, SD = 1.34$), 40대($M = 2.59, SD = 1.36$), 60대($M = 2.56, SD = 1.04$)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322) = .189, p > .05$). 위험 정보의 처리 태도 중 체계적 처리는 20대($M = 4.85, SD = 1.17$), 40대($M = 4.96, SD = 1.04$), 60대($M = 5.06, SD = 0.99$) 모두 약간 긍정적이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 322) = 1.06, p > .05$).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20대($M = 3.10, SD = 1.31$), 40대($M = 3.09, SD = 1.35$), 60대($M = 3.06, SD = 1.43$) 모두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322) = .06, p > .05$).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는 20대($M = 4.70, SD = 1.23$), 40대($M = 5.09, SD = 1.07$), 60대($M = 4.98, SD = 1.32$) 모두 약간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 322) = 2.97, p > .05$).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왜도(-0.61~0.74)와 첨도(-0.23~1.09)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 Variables | 20s | | 40s | | 60s | | Total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COVID19 Risk perception | 4.87 | 0.88 | 4.80 | 1.00 | 4.53 | 0.97 | 4.73 | 0.96 | |
| Political orientation | 4.13 | 1.08 | 4.34 | 1.13 | 4.14 | 1.16 | 4.20 | 1.12 | |
| Information seeking | Information seeking | 5.08 | 1.09 | 5.05 | 1.02 | 5.26 | 0.98 | 5.13 | 1.03 |
| | Information avoidance | 2.66 | 1.34 | 2.59 | 1.36 | 2.56 | 1.04 | 2.61 | 1.25 |
| Information processing | Systematic processing | 4.85 | 1.17 | 4.96 | 1.04 | 5.06 | 0.99 | 4.96 | 1.07 |
| | Heuristic processing | 3.10 | 1.31 | 3.09 | 1.35 | 3.06 | 1.43 | 3.08 | 1.26 |
| Public evaluation | 4.70 | 1.23 | 5.09 | 1.07 | 4.98 | 1.32 | 4.93 | 1.22 | |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Table 2〉 참조),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체계적 처리는 가장 높은 상관계수값($r = .80, p < .001$)을 보였으며,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와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는 가장 낮은 상관계수값($r = -.11, p < .05$)를 나타냈다. 연령은 위험 인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 = -.16, p < .01$), 정치 성향은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와 정(+)적 상관관계($r = .42, p < .001$)를 보였다. 위험 인식은 위험 정보의 탐색($r = .41, p < .001$),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r = .38, p < .001$)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와 부(-)적 상관관계($r = -.15, p < .01$)를 나타냈다.

Table 2. Results of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 Variables | 1 | 2 | 3 | 4 | 5 | 6 | 7 |
|-----------------------------------------------------------|---------|---------|---------|----------|----------|----------|--------|
| 1. Age | - | | | | | | |
| 2. Political orientation | -.018 | - | | | | | |
| 3. Risk perception | -.163** | -.029 | - | | | | |
| 4. Information seeking | .071 | .058 | .411*** | - | | | |
| 5. Information avoidance | -.044 | -.095 | .015 | -.327*** | - | | |
| 6. Systematic processing | .077 | .066 | .380*** | .801*** | -.391*** | - | |
| 7. Heuristic processing | -.019 | -.099 | -.145** | -.482*** | .679*** | -.529*** | - |
| 8. Public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 -.078 | .423*** | .083 | .185** | -.145** | .243*** | -.114* |

Note.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검증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연령, 정치 성향,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상호작용변수(우종필, 2012)인 연령×정치성향을 생성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 모델의 적합도가 낮게 확인되어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 MI)이용하여, 잠재변수간 경로를 추가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우종필, 2012). 최종적으로, 정보 탐색의 오차와 정보 회피의 오차, 정보 탐색의 오차와 체계적 처리의 오차, 정보 탐색의 오차와 주변적 처리의 오차, 정보 회피의 오차와 주변적 처리의 오차, 체계적 처리의 오차와 주변적 처리의 오차를 연결하고 최종 모델 적합도 지수는 높은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 27.089, df = 17, p > .05$; $RMSEA = .043 (< .05)$; $NFI = .968 (> .95)$; $CFI = .988 (> .95)$; $TLI = .974 (> .9)$].

〈연구가설1〉은 연령과 코로나19 위험 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경로계수 = $-.17$, $C.R. = -3.05, p < .01$). 정치 성향과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가설2〉는 유의미하지 않아서 기각되었으며(경로계수 = $-.03$, $C.R. = -.52, p > .05$),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RQ1은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경로계수 = $-.05$, $C.R. = -.96, p > .05$).

〈연구가설3a〉는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에 관한 것이었는데,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은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 〈연구가설3a〉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41$, $C.R. = 8.12, p < .001$).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회피에 대한 〈연구가설3b〉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기각되었다(경로계수 = $.02$, $C.R. = .26, p > .05$).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체계적 처리에 관한 〈연구가설4a〉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38$, $C.R. = 7.40, p < .001$).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주변적 처리에 관한 〈연구가설4b〉는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15$, $C.R. = -2.65, p < .01$).

〈연구가설5a〉는 정보 탐색과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관한 것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경로계수 = $-.10$, $C.R. = -1.41, p > .01$). 체계적 정보 처리와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연구가설5b〉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25$, $C.R. = 2.91, p < .01$). 정치적 성향과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6〉은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41$, $C.R. = 8.45, p < .001$).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Table 4〉에서 보듯이,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연구문제2)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연구문제3).

Table 3. Direct Effects of Main Variables

| H | Path | | β | S.E. | C.R. | p | Result |
|-----|-----------------------|-------------------------|---------|------|-------|--------|-----------|
| | Independent variables | → Dependent variables | | | | | |
| H1 | Age | → Risk perception | -.17 | 0.00 | -3.05 | < .01 | rejected |
| H2 | Political orientation | → Risk perception | -.03 | 0.04 | -0.52 | n.s. | rejected |
| H3a | Risk perception | → Information seeking | .41 | 0.06 | 8.12 | < .001 | supported |
| H3b | Risk perception | → Information avoidance | .02 | 0.07 | 0.26 | n.s. | rejected |
| H4a | Risk perception | → Systematic processing | .38 | 0.06 | 7.40 | < .001 | supported |
| H4b | Risk perception | → Heuristic processing | -.15 | 0.07 | -2.65 | < 0.01 | supported |
| H5a | Information seeking | → Public evaluation | -.03 | 0.10 | -0.31 | n.s. | rejected |
| H5b | Systematic processing | → Public evaluation | .25 | 0.10 | 2.91 | < .01 | supported |
| H6 | Political orientation | → Public evaluation | .41 | 0.05 | 8.45 | < .001 | supported |

Table 4. Indirect Effects of Main Variables

| RQ | Path | β | S.E. | 95% C.I. | p |
|-----|--------------------------------------------------------------------------|---------|------|------------|-------|
| RQ2 | Age → Public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 -.016 | .010 | -.038-.001 | n.s. |
| RQ3 | Risk perception → Public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 .066 | .032 | .008-.137 |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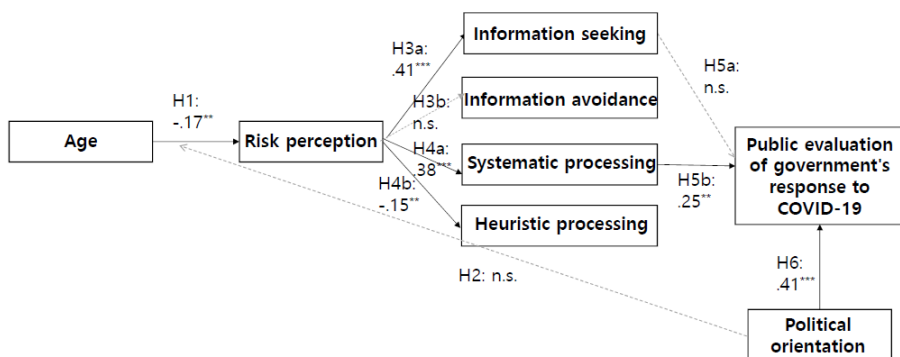


Figure 2. Summary of hypotheses tests.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shown in this figure. (***) $p < .001$, (**) $p < .01$

6. 결론

이 연구는 RISP모형을 적용하여 20대, 40대, 60대 응답자의 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우선, 연령은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쳐,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표본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20대의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M = 4.87$), 그들의 위험 인식은 60대($M = 4.53$)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성현정, 2020)에서 60대의 위험 인식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30대 다음으로 20대가 가장 높게 우려하였으며, 60대 이상의 우려는 가장 낮았고(이승진, 2020a), 2020년 8월에는 감염 가능성 즉 지각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30·40대의 고위험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이승진, 2020b)와 비슷한 경향이다. 따라서 2020년 11월 실시한 설문 결과에 기반한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대의 위험 인식이 높아지고 그들이 처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도우, 2020. 9. 23). 그들이 사회·물리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물론 모임조차 가질 수 없으며 경제 악화로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다른 위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Taylor-Gooby, 2001).

이 연구에서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의 코로나19 위험 정보에 대한 탐색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회피는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 세대별 차이가 없었다.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부정적인 수준이었으며,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는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 세대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20대, 40대, 60대가 모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시행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진지한 태도로 따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비교적 성공적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의 기저에 있음(류현숙, 2020)을 확인시키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은 모두 중도적 성향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겪은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현재의 60대는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40대는 가장 진보적이며, 20대는 보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김석호, 2020. 2. 17)과 다른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 성향은 현실 정

치에서의 진보와 보수 정당 선호와 지지로 정의하였으며, “귀하의 정치 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 보수적이다. ~ 4 = 중도 ~ 7 = 진보적이다.” 7점 척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하도록 하였었는데,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중도를 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20대 전체 응답자($n = 107$) 중 65명(60.7%), 40대 전체 응답자($n = 107$) 중 53명(49.5%), 60대 전체 응답자($n = 111$) 중 55명(49.5%)이 모두 4점인 중도를 택하였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결국 세 연령대의 정치 성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처럼 리서치 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5점이나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정치 성향을 알아보았던 최근의 선행 연구들(김수정·정연구, 2017; 김학량, 2021; 박현경·임희영, 2021; 유연 외, 2020)의 결과들을 확인하여 본 결과, 이 연구의 결과와 상당히 비슷한 정치 성향 분포가 확인되었다. 한 예로, 박현경과 임희영(2021)이 2021년 2월 서울시민들의 정치 성향에 따른 공공의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의 리서치 회사 패널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았을 때, 중도가 53.8%로 가장 많았고 진보는 27.9%, 보수는 18.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령대별로 정치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이 연구의 표본이 대표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공중들의 정치 성향이 실제로 중도가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연구에서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 성향은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정부를 평가할 때 진보와 보수 집단 간 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안혜정·이민주·정태연, 2012), 진보와 보수 간 정책선호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최창용·최슬기, 2018)와 맥을 같이 하며, 이러한 경향이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대응 평가에서도 잘 드러났음을 의미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을 알아보면서 RISP 모델에서 가장 선행요인으로 관심을 가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연령과 사회문화적 변인들 중 정치 성향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연령만이 위험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정보의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이와 관련한 정보의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 적극적임이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회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적 처리와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지식수

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Shiina et al., 2020)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위험 정보 탐색은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인 반면, 정보 회피는 정보에 대한 기피(Yang et al., 2014a)인데 이 연구에서 위험 인식이 정보 회피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높은 위험성과 일상의 큰 변화를 감안할 때 일반 공중들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회피 경향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정보에 대한 논리적이며 깊이 있는 정보 처리를 뜻하지만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인지적 보다는 피상적인 정보의 처리를 뜻하는데(Yang et al., 2014b), 위험 인식은 체계적 처리에는 긍정적으로, 주변적 처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메르스에 관한 서미혜(201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흥미롭게도, 정보 탐색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보 탐색은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체계적 처리는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처리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Yang et al., 2014b). 정보 탐색은 정보의 불충분성과 연관성이 있는데(Hogan & Brashers, 2009) 메르스(서미혜, 2016)의 경우에도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없이 바로 메르스 방지 행동을 취하거나 관련 정보를 숙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 정보 불충분성에 대해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충분한 상황(오주환, 2020. 8. 31)에서는 정보 탐색보다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를 통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대한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태도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 이는 위험 인식이 정보의 탐색과 처리와 같은 인지적인 자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가 인지적 자원의 참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Yang et al., 2014a)를 지지한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연령은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 처리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1년 넘게 지속되며 일반 공중들이 전례 없는 일상(마스크 쓰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인식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 정보의 탐색과 처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를 RISP 모델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는데 그 이론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연령은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

성향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RISP 모델에서 다른 선행 변인들에 비해 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Yang et al., 2014b)를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RISP 모델의 주요 변인들인 위협 정보의 탐색(탐색과 회피)과 처리(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 중에서 위협 정보 회피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에 위협 정보 회피라는 변인이 코로나19 위협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변인으로 확인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RISP 모델의 주요 변인들 중 체계적 처리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까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는 위협 정보에 대해 꼼꼼하며 이성적인 태도를 취할 때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HBM의 지각된 위협 차원을 접목하여 코로나19 위협을 측정하였기에 이와 관련한 탐색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HBM을 활용해 결핵(고지하나, 2011), 에이즈(장해 외, 2020)와 같이 보다 익숙한 질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 HBM을 적용하였기에 향후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HBM 관련 이론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이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RISP모델에 HBM의 변수를 일부 연계하여 질병 관련 위협의 인식과 정보 처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RISP모델을 보다 정교화 하였으며, 향후에도 RISP모델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련된 위협을 연구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실무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을 고연령층으로 한정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20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불안과 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민감한 젊은 세대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나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온라인을 통한 소통 창구, 캠페인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시로 체온을 체크하고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는 것처럼 위축된 심리에 대한 상담과 상태의 확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교육부나 대학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에 관련한 변화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직접적인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코로나19 정보 탐색과 처리 태도, 정부에 대한 준수한 평가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역의 파트너로서 이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등 정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소통한다. 셋째, 코로나19 위협 인식이 코로나19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일정 수

준의 위험 인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리더의 메시지를 관리하고, 방심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연령별로 정치 성향이 다를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이 세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이 연구의 표본이 리서치 회사의 패널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비확률표집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문항을 활용한 한계점일 수도 있다. 이영화와 전승우(2015)는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3개월 전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투표 참여 광고가 대통령 선거 투표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때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11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0점(매우 진보)부터 10점(매우 보수)에 답하도록 단일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 10개 정책 이슈(외교 안보,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재벌개혁, 집단소송제, 복지, 환경, 교육, 호주제, 미디어법)에 대해 4점 척도(1점:매우 보수 ~ 4점:매우 진보)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수집 후, 정치 성향에 대한 단일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10개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의 평균값과 정치 성향 단일 문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고($r = -.55, p < .001$) 측정값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에 대한 단일 문항보다는 이영화와 전승우(2015)처럼 복수 문항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 요인을 부각시키는 원인 중에 미디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박주현, 2020), 위험에 대한 영향력과 국민의 인식은 언론 메시지 프레임링을 통한 재구성의 영향이 높기 때문에(김영욱·이현승·이혜진·장유진, 2015),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 인식과 관련하여 언론과 미디어를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하거나, 관련 연구를 함께 검토하여 결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면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0대는 현재 90년대 생으로 이론적으로 연령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기존의 연령 연구를 통해 구분의 기준이 되는 정체성도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연령 집단의 공통된 특성을 찾고, 구분하며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는데, 연구 대상이 2020년 당시 20대, 40대, 60대만을 포함하였기에 전 연령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표본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입증된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그리고 위험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요소를 여러

연구에서 가져와 변수로 설정하였기에 탐색적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위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하여 그 연구 결과를 비교한다면 흥미로운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코로나19 예방 행동 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실무적인 함의는 훨씬 커질 것이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예방 접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행동 의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미치는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과 처리 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 행동을 촉진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H. J., Lee, M. J. & Jung, T. Y. (2012).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society and politics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9(4), 529-55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rbour, J. B., Rintamaki, L. S., Ramsey, J. A., & Brashers, D. E. (2012). Avoiding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7(2), 212-229.
- Barrios, J. M., & Hochberg, Y. (2020). Risk perception through the lens of politics in the time of the covid-19 pandemic (No. w2700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ruine de Bruin, W. (2020). Age differences in COVID-19 risk perceptions and mental health: Evidence from a national US survey conducted in March 2020.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 Cha, Y., & Cho, J. (2019). A social-cognitive model of applying RISP and HBM model for Korean internet users' behavioral intentions regarding fine-dust risk protection : The role of information exposure, subjective norms, negative emotions, and risk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6), 96-142.
- Cho, K. D., & Kim, J. B. (2018). The effects of fairness Korea 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isk perception : A study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generation division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5(4), 192-224.
- Choi, C., & Choi, S. (2018). A study on ideological terrain and policy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4(1), 157-191.
- Choi, Y. J., & Choi, S. B. (2013). Generational boundar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attitudes-preliminary study for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generation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9(2), 159-201.
- Douglas, M., & Wildavsky, A. (1983).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ryhurst, S., Schneider, C. R., Kerr, J., Freeman, A. L., Recchia, G., Van Der Bles, A. M., ... & van der Linden, S. (2020). Risk perceptions of COVID-19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isk Research*, 1-13.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New York,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Fischer, A., & Glenk, K. (2011). One model fits all? On the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engagement and confusion in the elicitation of preferenc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Ecological Economics*, 70(6), 1178–1188.
- Flynn, J., Slovic, P., & Mertz, C. K. (1994). Gender, race,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Risk Analysis*, 14(6), 1101-1108.
- Gerhold, L. (2020). COVID-19: Risk perception and coping strategies. Retrieved 24/9/20 from <https://psyarxiv.com/xmpk4>.
- Griffin, R. J., Dunwoody, S., & Neu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the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mental Research*, 80(2), S230-S245.
- Griffin, R. J., Neuwirth, K., Dunwoody, S., & Giese, J. (2004). Information sufficiency and risk communication. *Media Psychology*, 6(1), 23-61.
- Griffin, R. J., Yang, Z., ter Huurne, E., Boerner, F., Ortz, S., & Dunwoody, S. (2008). After the flood: Anger, attribution, and the seeking of information. *Science Communication*, 29, 285–315.
- Hogan, T. P., & Brashers, D. E. (2009). *The theory of communication and uncertainty management: Implications from the wider realm of information behavior*. In T. D. Afifi & W. A. Afifi (Eds.), *Uncertain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disclosure decisions* (pp. 45–66). New York, NY: Routledge.
- Honarvar, B., Lankarani, K. B., Kharmandar, A., Shaygani, F., Zahedroozgar, M., Haghighi, M. R. R., ... & Hashemi, S. M. (2020). Knowledge, attitudes, risk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adults toward COVID-19: A population and field-based study from Ir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6), 731-739.
- Huang, J., & Yang, Z. J. (2018). Risk, affect, and policy support: public perception of air pollution in Chin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281-297.
- Huh, S., & Kim, Y. (2015).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ISP in the context of risk types: Focusing on typhoon and hydrofluoric acid spill risk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0, 246-276.
- Hwang, S.-Y. (2020, March 23). 81% of people in Busan "feeling anxious about the spread of COVID-19"... A huge influence on ordinary life. *JoongAng Ilbo*. Retrieved 25/11/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426>

- Inbar, Y., Pizarro, D. A., & Bloom, P. (2009). Conservatives are more easily disgusted than liberals. *Cognition and Emotion*, 23(4), 714-725.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1(1), 1-47.
- Jo, S., Shin, H., Yoo, S., & Roh, H. (2012).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uberculosis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 An extension of HBM with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fea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6(1), 148-177.
- Jung, J., Lee, J., Cho, B., Ku, H., Ahn, J., Jang, D., Go, H. & Jang, S. (2010). *Risk society, risk politics*. Seoul: SNU PRESS.
- Kahlor, L. A., Dunwoody, S., Griffin, R. J., Neuwirth, K., & Giese, J. (2003). Studying heuristic-systematic processing of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23, 355-368.
- Khaltar, O., Kim, T. H., & Moon, M. J. (2019). A study on the risk society and future government capacity: Focusing on the impact of government agility, managerial capacity, and trust in government on risk perception.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5(1), 209-244.
- Kim, D.-W. (2020, September 23). 'People in their twenties feeling depressed'... Twofold increased depression after the emergence of COVID-19.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25/11/20 from <https://www.fnnews.com/news/202009231143363848>
- Kim, H. (2021). 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political orientation of vot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1), 1165-1177.
- Kim, H. (2021, December 21). Government's 'doing well' response to Covid-19 56%...same as last month. *NEWS1*. Retrieved 26/5/21 from <https://www.news1.kr/articles/?4189186>
- Kim, H.-G., Park, G.-J., & Cheung, C.-S. (2018, November) Development of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evaluation index.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GyeongGi-Do.
- Kim, H. J. (2019). Roles of risk perception, fear, and anger in information behaviors about nuclear energy : Based on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2), 7-45.
- Kim, J.-H., Oh, J.-H., Kim, T.-Y., Yoo, J.-G., Choi, H.-J., Lee, D.-G., Kim, J.-S., & Park, W.-I. (2020). COVID-19 seen by Gyeonggi-do province. *Issue & Analysis*, 1-25.
- Kim, S. H. (2020, February 17). Historical experiences influence political orientation by generation... Born

- in the 1970s experiencing the IMF, a “progressive tendency”. *Munhwa Ilbo*. Retrieved 25/11/20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701031042000002>
- Kim, S.-J., & Cheong, Y. G.(2017). Influence of political orientation, use of news media and political convers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attitude and behavi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5), 2017.10, 69-101.
- Kim, Y. (2014). *Risk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Y., Kim, Y., & Kim, S. (2018). Risk seeking and processing on climate chang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channel beliefs, and behavioral belief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5), 72-106.
- Kim, Y. L. (2011). The structure of social risks in Korea: Are social risks democratic or hierarchical?. *Discourse201*, 14(3), 57-88.
- Kim, Y., Lee, H., Lee, H., & Jang, Y. (2015, May) A study on media reports regarding the risk of fine dust on the formation of recipient's perception and view.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Seoul.
- Kim, Y.-T. (2012). Public attitudes toward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party politic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64, 259-281.
- Ko, J. (2011).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of tuberculosis: Focu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Association. (2007). *Research on evaluation method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system*. Sejong-si: National Fire Agency.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Present status of overseas COVID-19 infections*. Retrieved 29/01/21 from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Ku, Y., Ahn, J., & Noh, G. Y. (2020). Relationships between particulate matter risk perception, information seeking and preventive behaviors : An application of extended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34(1), 5-28.
- Lee, B. Kwan., Oh, H. J., Shin, K. A., & Ko, J. Y. (2008). The effect of media campaign as a cue to action on influenza prevention behavior : Extending health belief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10(4), 108-138.
- Lee, E. H. (2020). Covid-19 the age of new infectious diseases, paradigm shift to an unfection city. *Issue &*

Analysis, 1-28.

- Lee, H. G., & Paek, H.-j. (2019). Effects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and temporal distance on people's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about earthquak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3(3), 84-108.
- Lee, K., Jin, B., Choi, Y. S., & Han, J. S. (2017). The effects of types of cognitive risk perception of tuberculosis on issue salience, information-seeking,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 The mediating role of worr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9(4), 64-107.
- Lee, M., & You, M. (2020).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South Korea during the early stage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9), 2977.
- Lee, S. J. (2020a). 9th perception survey of COVID-19(Situational awareness, social distance etc) ('Public Opinion in Public Opinion' Weekly Report of Korea Research, 82-2). Seoul: Korea Research.
- Lee, S. J. (2020b). 14th perception survey of COVID-19(Situational awareness, Trust etc) ('Public Opinion in Public Opinion' Weekly Report of Korea Research, 92-2). Seoul: Korea Research.
- Lee, Y., & Chun, S. (2015). The impact of vote campaigns on voters' political efficacy and vote participation : Based on political ideology perspective of young voter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38, 5-39.
- Lee, Y. A., Lee, N., & Lee, H. J. (2013). *Koreans' risk perception*, Seoul: Nanam.
- Leiserowitz, A.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1), 45-72.
- Liu, Y., Keum, H., & Cho, J. (2020). The effects of customized information environments on knowledge and expression on SNS focusing on the roles of selective exposure and incidental exposur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4), 289-324.
- Mannheim, K. (1970). The problem of generations. *Psychoanalytic Review*, 57(3), 378-404.
- McComas, K. A. (2006). Defining moments in risk communication research: 1996-2005.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75-91.
- Mitchell, R. J. (1993). Path analysis: pollination. In SM Schneider & J. Gurevitch, eds. Design and analysis of ecological experiments, 211-231. NY: Chapman and Hall.
- Narayana, G., Pradeepkumar, B., Ramaiah, J. D., Jayasree, T., Yadav, D. L., & Kumar, B. K. (2020). Knowledge, perception, and practices towards COVID-19 pandemic among general public of India:

-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Current Medicine Research and Practice*, 10(4), 153-159.
- Oh, J.-H. (2020, September 8). After the spread of Covid-19, anger and fear grew... "Psychological quarantine required." *Yonhap News Agency*. Retrieved 7/6/21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084400004?input=1195m>
- Oh, J.-H. (2020, August 31). [Exclusive] More than 20,000 'Beepers~' A 47-times explosion, Disaster text message becoming ordinary. *Kookmin Daily News*. Retrieved 25/11/20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3313&code=61121111&cp=nv>
- Park, H.-K., & Lim, H. Y. (2021). Seoul citizens' perception of public health care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orientation. *SEOUL HEALTH ON AIR*, 17,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ublic Health and Medical Foundation.
- Park, J.-H.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rona 19' news frame based on ideological orientation of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4), 40-85.
- Park, S. P., & Cho, H. J. (2010). Critical appraisal of the risks of the 2009 Novel influenza and the strategi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anage and treat it.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30, 7-48.
- Ryu, H.-S. (2020). Risk perception surrounding future hazards 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Focusing on COVID-19 cases. *Future Horizon*, 6, 28-35.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Qiu, J., Shen, B., Zhao, M., Wang, Z., Xie, B., & Xu, Y. (2020). A nationwide survey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people in the COVID-19 epidemic: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General psychiatry*, 33(2), 1-4.
- Rosenstock, I. M.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354-386.
- Seong, H.-J. (2020). *Change and Future of Our Medical Treatment in the Post COVID-19 Era(A Joint Research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Korea Research)* ('Public Opinion in Public Opinion' Weekly Report of Korea Research, 86-1). Seoul: Korea Research.
- Seo, M. (2016). Effects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on MERS preventive behaviors and moderating roles of SNS use during 2015 MERS outbreak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16-140.
- Shiina, A., Niitsu, T., Kobori, O., Idemoto, K., Hashimoto, T., Sasaki, T., ... & Iyo, M. (2020).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anxiety about COVID-19 infection and risk behaviors for spreading infection: A national survey in Japan. *Brain, Behavior, & Immunity-Health*, 6, 100-101.

- Sjoberg, L. (1998). World views, political attitudes and risk perception. *Risk*, 9, 137-152.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4799), 280-285.
- Slovic, P., Flynn, J. H., & Layman, M. (1991). Perceived risk, trust, and the politics of nuclear waste. *Science*, 254(5038), 1603-1607.
- Slovic, P. (1997).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 assessment battlefield. *U. Chi. Legal F.*, 59.
- Slovic, P. E. (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UK: Earthscan publications.
- Steger, M. A. E., & Witt, S. L. (1989). Gender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orientations: A comparison of publics and activists in Canada and the U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2(4), 627-649.
- Stern, P. C., Dietz, T., & Kalof, L. (1993). Value orientations, gender, and environmental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25(5), 322-348.
- Sun, Q.-R., Cho, M. - H. (2018). The impact on risk information search processing and information diffusion behavior of the Chinese in relation to the THAAD placement in Korea.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2), 2018.4, 329-351.
- Taylor-Gooby, P. (2001). Risk, contingency and the third way: Evidence from the BHPS and qualitative studi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5(2), 195-211.
- Trumbo, C. W. (2002). Information processing and risk perception: An adaptation of 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Journal of Communication*, 52(2), 367-382.
- Wei, J., Zhao, M., Wang, F., Cheng, P., & Zhao, D. (2016). An empirical study of the Volkswagen crisis in China. *Risk Analysis*, 36(1), 114-129.
- Wi, Y.-S. (2020, September 21). 'COVID-19' perceived by people living in Jeju... "Crisis + Anxiety". *The Halla Ilbo*. Retrieved 25/11/20 from <http://www.ihalla.com/read.php3?aid=1600679883692598121>
- Woo, J.-P. (2012).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professor Woo Jong-pil's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 Yang, Z. J., Aloe, A. M., & Feeley, T. H. (2014a).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64(1), 20-41.
- Yang, Z. J., L. N. Rickard, Harrison, T. M. & Seo, M. (2014b). Applying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to examine suppor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Science Communication*, 36(3), 296-324.
- Yoo, S. J., Jeong, H. J., & Park, H. S. (2010). The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for H1N1 virus

vaccination and the impact of negative news reports the comparison between HBM and TPB.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2(3), 2010.7, 283-319.

Yoon, H.-W. (2020, October 24). Single-hearted devotion to the Democratic Party' among people in their forties from X generation.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25/11/20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241128011

Yoo, S.-I. (2020, February 21). People who are politically 'conservative' have a higher level of COVID-19 risk perception... A fall in trust in media. *KUKINEWS*. Retrieved 25/11/20 from <http://www.kukimedi.com/article/view.asp?gCode=01&sCode=0000&arcid=752012&code=51111102>

Zhang, H., Park, J., & Lee, K. (2020).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of overseas infectious diseas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NS eWOM.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22(2), 265-302.

| | | | |
|--------|-------|-----|-----|
| 최초 투고일 | 2021년 | 02월 | 12일 |
| 게재 확정일 | 2021년 | 07월 | 16일 |
| 논문 수정일 | 2021년 | 07월 | 30일 |

부록 I. 참고문헌

- 고지하나 (2011). <결핵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건강신념모델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미세먼지 위험인식이 위험정보 처리와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적용. <한국방송학보>, 34권 1호, 5-28.
- 김영란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담론201>, 14권 3호, 57-88.
- 김도우 (2020, 9, 23). '20대는 현재 우울해'...코로나19 이후 두배 증가. <경향신문>, Retrieved 25/11/20 from <https://www.fnnews.com/news/202009231143363848>
- 김영옥 (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옥·김영지·김수현 (2018).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연구: 정보원 신뢰도, 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62권 5호, 72-106.
- 김영옥·이현승·이혜진·장유진 (2015, 5월).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015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 김영태 (2012).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와 정당정치. <한국동북아논총>, 64권, 259-281.
- 김석호 (2020, 2, 17). 역사적 경험이 세대별 정치성향 좌우... IMF 겪은 1970년대생 '진보성향'. <문화일보>. Retrieved 25/11/20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701031042000002>
- 김수정·정연구 (2017). 정치성향,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대화가 정치참여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1(5), 69 - 101.
- 김정훈·오재호·김태영·유정균·최혜진·이다겸·김재신·박원익 (2020).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 이슈&진단, 1-25
- 김학량 (2021). 유권자의 정치성향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문사회> 21, 12(1), 1165-1177.
- 김향기·박길주·정중수 (2018, 11월). <재난대응 역량 평가지표 개발>.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경기도.
- 김현 (2021, 1, 21).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56%...전달과 동일. <뉴스1>, Retrieved 26/5/21 from <https://www.news1.kr/articles/?4189186>

- 김효정 (2019). 위험인식, 두려움, 분노가 원자력정보 탐색과 처리,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 정보탐색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권 2호, 7-45.
- 박상표 · 조홍준 (2010). 2009 신종플루의 위험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 <상황과 복지>, 30호 7-48.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 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40-85.
- 박현경 · 임희영 (2021). 정치성향에 따른 서울시민의 공공의료 인식,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제17호. 서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류현숙 (2020). 미래위험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대국민 소통 :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FUTURE HORIZON>, 6월호, 28-35.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서미혜 (2016).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가 메르스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험정보 탐색 처리 모형의 확장과 SNS 이용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8호, 116-140.
- 성현정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 우리 의료의 변화와 미래(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리서치 공동기획 조사)> ('여론속의여론' 주간리포트 86-1). 서울: 한국리서치.
- 순치엔룽 · 조미혜 (2018).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인들의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및 정보 확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3(2), 329-351.
- 안혜정 · 이민주 · 정태연 (2012).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권 4호, 529-552.
- 오주현. (2020, 9, 8).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분노·공포 커졌다...“심리방역 필요”. <연합뉴스>. Retrieved 07/6/21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084400004?input=1195m>
- 오주환 (2020, 8, 31). [단독] 2만번 넘게 '삐삐~' 47배 폭증, 일상이 된 재난문자. <국민일보>. Retrieved 25/11/20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3313&code=61121111&cp=nv>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위영석 (2020, 9, 21). 제주도민에게 '코로나19'란.. “위기+두려움”. <한라일보>. Retrieved 25/11/20 from <http://www.ihalla.com/read.php3?aid=1600679883692598121>
- 유연 · 금희조 · 조재호 (2020).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형가 시사 지식과 SNS 상의 의견 표현에 미

- 치는 영향: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과 우연적 이견 노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89-324.
- 유석조·정현주·박현순 (2010).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 및 백신 부작용 보도의 영향 분석 건강신념모델과 계획된 행동 이론 간 비교. <한국광고홍보학보>, 12(3), 283-319.
- 유수인 (2020, 2, 21). 정치 '보수' 성향일수록 코로나 위험 인식 ↑...언론 신뢰 떨어져. <쿠키뉴스>. Retrieved 25/11/20 from <http://www.kukimedi.com/article/view.asp?gCode=01&sCode=0000&arcid=752012&code=511111102>
- 윤호우 (2020, 10, 24). X세대였던 40대, '일편단심 민주당'. <경향신문>. Retrieved 25/11/20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241128011
- 이경진·진범섭·최유석·한정석 (2017). 결핵에 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이슈 부각 인식, 정보 추구 의도, 예방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걱정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9(4), 64-107.
- 이병관·오현정·신경아·고재영 (2008). 행위단서로서의 미디어 캠페인이 인플루엔자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강신념모델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0권 4호, 108-138.
- 이영애·이나경·이현주 (2013). <한국인의 위험 지각>. 서울: 나남.
- 이영화·전승우 (2015). 투표 참여 독려 광고가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행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8, 5-39.
- 이은환 (2020).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시대, 감염차단도시(Unfection City)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슈&진단, 1-28.
- 이승진 (2020a). <기획: 코로나19 9차 인식조사(상황인식,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여론속의여론'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82-2). 서울: 한국리서치.
- 이승진 (2020b). <기획: 코로나19 14차 인식조사(상황인식, 공적주체 신뢰도 등)> ('여론속의여론'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92-2). 서울: 한국리서치.
- 이혜규·백혜진 (2019).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시간적 거리가 지진에 관한 정보 추구 및 회피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 연구>, 23권 3호, 84-108.
- 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해외 감염병 예방 행동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적 행위단서로서의 SNS 구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2권 2호, 265-302.

- 정진성·이재열·조병희·구혜란·안정옥·장덕진·고형면·장상철 (2010).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광덕·김중백 (2018). 한국사회의 공정성이 사회경제정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192-224.
- 조성은·신호창·유선옥·노형신 (2012). 결핵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 기효능감과 공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홍보학 연구>, 16권 1호, 148-177.
- 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외발생현황. Retrieved 29/01/21 from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차유리·조재희 (2019).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미세먼지 위험 예방행위 의도에 관한 사회인지 접근 의 RISP, HBM 적용모형: 정보 노출, 주관적 규범, 부정적 감정, 위험 지각의 역할. <한국언 론학보>, 63권 6호, 96-142.
- 최유정·최선헌 (2013). 연령대별 세대 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통해 본 세대의 경계: 정치적 세대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사회과학연구논총>, 29권 2호, 159-201.
- 최창용·최슬기 (2018). 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정부학연구>, 24권 1호, 157-191.
- 한국비시외협회 (2007).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방법 연구>. 세종시: 소방방재청.
- 할타르 어뜨후·김태형·문명재 (2019). 위험사회와 미래정부의 역량: 정부의 민첩성, 관리역량, 그 리고 정부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권 1호, 209-244.
- 황선운 (2020, 3, 23). 부산시민 81% “코로나 19 확산에 두려움 느껴”...일상생활에도 큰 영향 받아. <중앙일보>. Retrieved 25/11/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426>
- 허서현·김영옥 (2015). 위험 유형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 연구: 불산 유출과 태풍 관련 위험 상황 비교 중심. <한국언론정보학보>, 246-276.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 처리,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조영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주무관)

김수연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정치, 세대와 같은 기존의 사회적 갈등에 주목하여, RISP 모델을 적용하여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코로나19 위험커뮤니케이션 정보의 탐색 처리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 리서치 회사 패널인 20대 107명, 40대 107명, 60대 111명 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20대의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의 위험 인식은 낮게 나타나 두 연령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은 모두 중도적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정치 성향은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만 영향을 미쳐,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정보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주변적 처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정보 회피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정보 탐색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공중의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를 통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대한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 정보에 대한 탐색과 처리를 하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중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인 연령과 사회문화적 특징인 정치 성향이 그들의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까지 미치는 영향을 RISP모델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위험 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연령, 정치성향, RISP 모델